

E-X-I-T

6월 1일 火

5월 31일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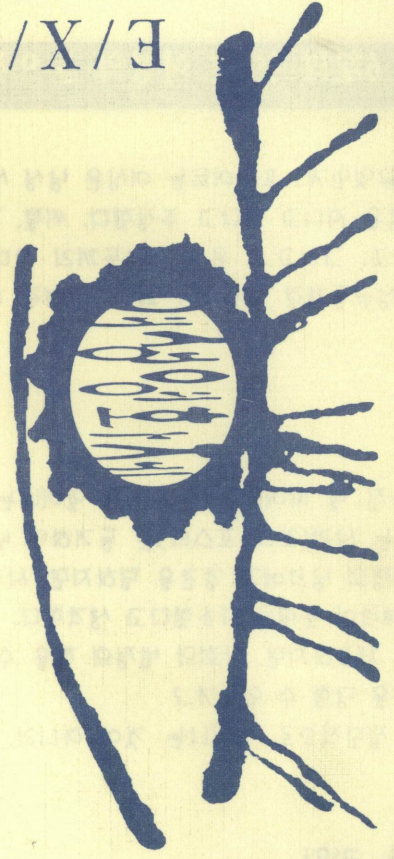
5월 30일 日

- 5:00 바울드
- 7:00 밴더트
- 9:00 어떤 여성에 대한 영화
- 1:00 클레오
- 3:00 전사의 후에
- 5:00 5시에서 7시까지
- 7:00 연어알
- 9:00 딸이 되는 절차
- 2:00 자매들
- 4:00 피고인
- 6:00 평범하지 않은 평범 & 감독과의 대화
- 8:00 평범하지 않은 평범 & 정호현 감독 강연회

여성영화제

1995년 00:00 ~ 01:00 (총 1시간 30분)
 (총 7편의 영화를 상영함)

E/X/I/T



진보적 여성위원회

제 1회 여성영화제

평등과 억압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는

1회 여성 영화제를 준비하며 씨부림대기

■ 카한 윤강— 변태, 도착, 비정상, 조루, 지루, 히스테리아... 이는 모두 권력의 억압체제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인간성을 넘하고 고고한 척 지껄이고 있다. 쌍, 죽같은 세상!! 어느 한국영화였을 것이다. 살려고 발악하는 여인이 나중 에 관중을 향해 던지는 말이 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외국영 화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 나와! 상대해주마!!"
 세상과의 적대적 관계를 선포한다. 엇/며/어/라! ~ 이히 -
 그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우리의 세상을 되찾으려 하니,
 여성위원회는 무척 유쾌하다. 야야야~ 갓 바쁜 사람이든 집구석 배수든...랄랄랄 라 랄라라라 라라랄라 랄 (조pd ♪♪♪)
 - 전투적 여성위원회의 무권력 위원장 카리스마 한

■ 씨발 해경— 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씨발..... 그놈의 숙제들이 나 를 열 받게 한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였는데, 실습 후 해이해진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 버린 나(목이 나오지만 참겠다). 어쨌든 이번 영화제를 열심히 준비한 진보적 여성위원회 E/X/I/T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모든 소외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E/X/I/T 가 되었으면 한다.
 한가지, 성폭력 전담위원이 너무 터프해서 상담하는 것을 포기하는 본들이 있을 까봐 걱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난 터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 는 사람입니다요".

■ 광분 지은—소수를 돌아본다. 다수의 인간들 사이에 있는 나에게 너무도 힘 든 일이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은 개인이 아니다. 소외된 이들의 대표자들일 뿐 이다. 다시 소수를 돌아본다. 그 중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된다.

■ 꼬비 미경—여러 사정으로 인해 영화제를 하기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었는 데, 이렇게 하게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 기쁘다.

■ 마닐 혜영— 때론 침묵이 멋있다.

여성위원회의 전사(戰士)들을 모집합니다.
 남성도 매우 특별히 귀애해 주는 편입니다(?)
으호호(엽기적인 웃음)
 유쾌한 여성위원회! 섹파적인 여성위원회! 엽기적인 여성위원회!!
 들어오고 싶으시면, 자유재(청람광장),
 혹은 019-654-1186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홍화생회 방으로 가서서러 뽀뽀스럽게 외쳐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쿵쿵쿵.....

현상수배

첫째 날 : 5월 30일, 첫 경험이었지... 애야...

바운드

제갈, 그들을... 남자를 죽여버리지! 그리고.... 우리끼리 살자....

벤디트

반항적이고 시니컬한 폭력 전과자 루나, 매력적인 결혼 사기범 엔젤, 연약한 심성의 살인 미수범 마리, 벤드 도리머 애마, 4명의 여죄수가 각벤드를 결성, 경찰의 날 기념파티에 초대되는데, 그들이 뭘 하겠어....

이차피 검옥에 있든 있지 않든, 우리는 조종당하고 감시당하고, 통제받고 사는 거지... 그래서 벼랑 끝에 놓인 사람의 해방구란 이렇게도 자유롭고 살 맛나는 거지!!

파괴불한 싸운드와 함께 그들의 자유를 한껏 탐닉하고 싶으다....

어떤 여성에 대한 영화

어떤 여성?? 궁금하지않... 직접 느껴보셔...

둘째 날 : 5월의 마지막날! 3차 성징이 발현되는 날

전사의 후에

결혼 이후 18년이 된 베스와 제이크에게 사랑이란 운명처럼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 아이의 부모 베스는 삶의 희의를 느낀다. 현실은 그녀의 영혼을 날카롭게 할퀴며 파고들는데...배인 우위의 사회에서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마오리족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에게 '희망'은 사치인가? 신의 은총을 받은 축복받은 전사.... 강간 당하고 지대한 딸의 죽음.... 폭력!! 전사는 죽었는가.....

언어와

크주배-남자라 여기지만 사실은 여자, 시구인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치는 에스키모의 관습에 따라 원주민과 시구인의 동침으로 태어난 괴짜가 있다. 그리고 로즈위타에게 부모를 찾기 위해 찾아온 크주배, 그녀들의 우정과 사랑.....

한마디로 지독하게 외롭고, 지독하게 껍 채워진 아주 독특한 영화!!

배수상영

5시에서 7시까지

'5시에서 7시까지'는 5시에서 7시까지 상영할 예정입니다. 킁킁!!

딸이 되는 절차

딸이라서, 여자라서! 여자라서, 어머니라서....!!

왜 우리는 여전히 개체 취급을 받는 걸까...?

마지막 날 : 6월의 첫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자매들

자매의 의미란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여성은 남성 심기를 부리위하고, 항상 결핍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팔, 게소리.... 자매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음.... 여자들끼리 자매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에게 여성공동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피고인

어느 날 작은 술집 '밀' 뒤편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밀바닥 삶을 사는 사라(조디 포스터)는 동거하던 남자와 싸우고, 친구를 만나리 갔다가 3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신정적 옷차림, 관능적 매력이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검사인 캐서린은 사라를 만나 두 명을 체포하지만, 사회와 법정의 침울 수 없는 가비움과 냉담함!! 청녀는 강간을 당할 수 없는가..?

또는 성폭력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의 심기십십만 해당되는가...?

안토니아스 라인

어머니의 임종을 맞아 다니엘과 고향에 돌아온 안토니아는 전쟁의 상흔으로 칙백해진 농장을 일구며 마을에 정착해, 염세 철학자, 신파이자 정의사이며 카페의 주인인 율가, 여자들을 가축 취급하는 농부와 그의 저능아 딸, 마을의 심롱이 루니립스, 카톨릭 계을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신교도와의 못 이룬 사랑에 상심해하지, 여유 있는 안토니아, 딸 다니엘, 그 딸 테레사, 그 딸 사라 - 4대의 일생..... 어/성/공/동/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다큐」 '평범하지 않은 평범' 그리고 여성주의 감독과의 전속!!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적어도 주인공들의 고민이나 생각들을 무시하는

그런 관객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성에 관한 자기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호연 (연출) -

평범하지 않은 평범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보수적인 성적 규범과 개방적인 사고가 혼재해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적 현실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성적인 주체성을 형성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성에 대해, 혹은 앞으로가 경험할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것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 성에 있어서, 더 이상은 '당하고'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에 대해 말하고, 주장하고,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보다 당당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성인으로서 대접받고, 자유연애(free sex)가 가능한(?) 대학생이다. 우리가 성적 자기 주체성을 가지기위하여, 신체자유권, 그 자유와 해방의 몸짓을 누리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는 이 영화를 추천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쉽게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려고 기를 쓸 때, 우리는 그가 이미 주체가 아니고 객체임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인으로써 거듭날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엄숙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 영화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세 여자의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며, 이 영화를 보며 모든 관객이 3차 성징을 보였으면 한다.

"섹스북이잖는 그 책을 보면서 자위틀 더 많이 알게되었는데..." . 정아 .

"지금은 왠지 불안해, 불안해서 정말 결혼을 안 한다면, 정말 결혼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 . 은화 .

"그 안에서 여자가 얼마만큼 저항했는가 내지는 얼마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을" . 기해 .